

도내 시·군과 협력사업 추진 다짐

전개공, 농어촌임대주택 지역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 모색 등

전북개발공사는 21일 공사 사옥에서 프레스 데이를 개최하고 2017년도 상반기 경영실적 및 향후 사업전략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개공은 상반기에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인 전북혁신도시 개발사업과 전주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작년 말로 사업이 마무리돼 공공시설물 등을 전주시와 완주군에 인계를 마쳤다.

또한 두 택지조성사업의 용지 총 642필지 중 635필지를 매각해 분양률 98%를 달성, 잔여부지 매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광역도시개발공사 최초로 추진 중인 농어촌임대주택 1단계(장수군·임실군) 및 2단계(진안군·무주군) 건립 사업과 관련해 장수군 농어촌임대주택은 기초공사, 임실군은 지하층 골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예정공정을

을 각각 102%, 130% 초과해 달성하는 등 순조롭게 건립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인 진안군과 무주군은 해당 군과의 철저한 사전협의를 통해 해당 지자체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농어촌임대주택이 지역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 중이다.

또한, 공사가 추진 중인 택지조성 및 임대주택 건립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임대료 및 하도급의 지역업체 참여율, 지역자재사용율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에는 원도급 75%, 하도급 85%, 지역자재사용율 95%를 목표로 공사를 관리한 결과, 각각 116%, 113%, 101%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공사는 공사에서 운영 중인 에코리지안리츠 등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만족을 위해 익산 송학지안리츠 무료 법률·금융·치아상담, 입주자 가족사진 콘테스트, 임대아파트 경로당 어버이날 물품지원, 임대주택 스마트 앱개발 추진, 폭염기간 관리사무소 출입고객 생수지원 등 입주고객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상반기에 실시했다.

다음으로, 공사는 향후 사업전략과 관련하여 공사와 도내 시·군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차에 걸쳐 도내 시·군에 협력사업 제안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로 국산 수송용에 1,242억원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이고, 순창군에 175억원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각 시·군의 현안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도민을 위해 세워진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전북개발공사 고재찬 사장은 "도민 여러분의 공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덕분에 상반기에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도민의 행복을 짓는 미래공간 창조가 공사의 미션인 만큼, 공사의 모든 사업은 고객인 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개발공사는 추진하는 사업 이외에도 한마을 봉사단, 1사 1촌 자매결연활동 등 사회환원규모도 확대해 더욱 도민에게 가까이 다가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인재용 기자



경진원, 마을기업 아카데미 성료

현장·집체교육 통해 각 사업의 가능성 타진 기회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공동체사업의 이해를 돕고 신규 마을기업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2017 마을기업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남원을 비롯한 9개 시·군에서 신청한 35명의 교육생들은 공동체 사업에 뜻을 두고 모였으며 현장교육과 집체교육을 통해 각 사업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기회를 가졌다.

1일차 교육은 정읍과 전주 마을기업 3개소를 찾아가 운영사례와 주요 체험프로그램을 경험했고, 이어지는 2일차에는 군산과 김제 마을기업의 생생한 스토리를 들으며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마을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된 3일차 집체교육에서

는 전북을 대표하는 우수 마을기업 대표들의 강의와 마을기업 설립 절차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구체적인 공동체사업의 틀을 다졌다.

최종 멘토링을 거쳐 마을기업 사업에 대한 의지와 환경을 확인한 총 18명의 수료생들은 8월 18일까지 모집하는 예비마을기업 준비를 위해 지속적인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진원 관계자는 "건강한 공동체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출발한 마을기업 아카데미 과정이 한여름 무더위를 이길 정도로 열정적으로 진행된 만큼, 이번 교육을 마친 공동체들이 전북의 마을을 이끌고 나가는 든든한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외국인 근로자 많은 건설현장 '최저임금 폭탄'에 시름

단순노무 인력 인상분 적으므로 인건비 수직상승 '원가 비상'

내년 최저임금 16%대 인상을 앞두고 건설현장이 '원가비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들이 고용하는 단순노무직의 상당수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여서 인건비 급등이 불보듯 뻔해졌다.

한국고용정보원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일반 외국인 취업비자인 E-9비자 취득자 중 건설업에 할당된 '도입 쿼터'는 2400명이다.

지난해에는 2500명, 2015년에는 2300명, 2014년에는 2350명의 E-9비자 외국인력이 건설현장에 투입됐다.

건설업 도입 쿼터는 전체 E-9비자

취득자의 5~10% 선이다. 제조업에 대부분의 쿼터가 할당되고 농축산업, 건설업, 여업, 서비스업 순으로 할당 규모가 크다.

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득한 비자는 크게 세 가지다.

해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F-4비자와 조선족 등 방문취업 동포 대상인 H-2비자, 일반 외국인인 E-9비자 등이다. F-4와 H-2비자 취득 외국인력의 임금은 대한건설협회가 매년 발표하는 직종별 시중노임단가에 따라 책정된다.

다만 언어 문제로 인해 국내 근로자들보다는 적어 간접적으로 최저임금의 영향권에 있다. 단순 노무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E-9비자 근로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E-9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인은 3년간 국내에 체류하며 건설현장에서 '보통인부'로 일할 수 있다.

비자를 연장하면 최대 4년10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올해 현재 건설현장 내 E-9비자 취득자는 1만2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6470원)보다 16.4% 오른 수준이다. 역대 최고 인상률이다. /인재용 기자

이 때문에 E-9비자 취득 외국인을 고용하는 건설현장은 인건비 상승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 오지의 건설현장에서는 내국인 근로자 고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E-9비자 외국인 고용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있다"면서 "인력 수급의 어려움 탓도 있지만 내국인은 물론,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것이 근본적 이유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는 10만2628원이다. 시간당 단가는 약 1만2820원이다.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시중노임단가와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인재용 기자

LH, 군산·익산 신축 다세대주택 입주자 선착순 모집

LH 전북본부는 군산·익산지역 신축 다세대 11개 단지에 대해 37호의 입주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지난 19일 LH홈페이지에 공고됐으며, 오는 8월 3~5일까지 3일간 주택개방을 거쳐 오는 8~18일까지 지역별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군산지역은 8월 8~18일까지 LH 군산대상담당실(산북동 소재)에서, 익산

지역은 10~18일까지 LH 익산권 주거복지센터(모현동 소재)에서 동·호 지정해 신청 접수 할 수 있다.

다만, 접수일 오전 10시까지 신청서류를 구비해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하여, 신청접수 순서를 결정한다.

최장 임대기간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후(최초 입주료부터 10년) 분양전환되는 주택이다. /인재용 기자

전북농협, 농가 맞춤형 축산환경개선사업 전개

전북농협은 '클린업 축산환경개선사업'의 날의 일환으로 도내 4개 시군 6개 농장에서 여름철 냄새취약 시기 축산냄새 제로화를 위해 '농가 맞춤형 축산환경개선사업'을 집중 전개한다.

'농가 맞춤형 축산환경개선사업'은 냄새취약시기인 여름철에 고질적인 축산냄새를 저감하기 위해 냄새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농가 여건, 주변 환경에 맞는 맞춤형 냄새저감 계획을 수립해 농가 스스로 냄새저감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냄새저감 효과의 과학적인 검증 위해 한국환경공단, 축산환경관리원, 학계 소속 전문가 등이 함께 사전·후 악취물질을 측정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농가별 여건에 맞는 냄새저감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인재용 기자

경에 맞는 맞춤형 냄새저감 계획을 수립해 농가 스스로 냄새저감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냄새저감 효과의 과학적인 검증 위해 한국환경공단, 축산환경관리원, 학계 소속 전문가 등이 함께 사전·후 악취물질을 측정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농가별 여건에 맞는 냄새저감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인재용 기자

익산국도청, 호남지역 특별교통대책 마련

익산국도관리청이 여름 휴가철 호남지역을 찾는 여행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다.

21일 익산국도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하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국도 정비와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 운전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우선, 휴가철 여행객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전남·북 관내 일반국도 3,472km 및 공사가 진행 중인 46개 현장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도로 파손 구간을 복구하는 한편 교통안전시설 등이 미비한 곳에 대한 정비도 마쳤으며, 호우 시 재해 취약시설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또한 도로교통정보센터(☎063-837-1184)를 통해 하계 휴가철 기간 중 국도 및 인근 고속도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스마트폰 무료 애플 '통합교통정보')하고, 도로전광판을 통해 교통사고, 정체구간 등 교통정보도 운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연휴기간 중 호남지역 국도를 이용하다 불편이 있을 경우 도로불편 신고전화(080-0482-000)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익산국도청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국도 27호선 장산·송학 구간과 진안·적성(무주) 구간 등 호남지역 국도 8개 구간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개통한 바 있다. /인재용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부신시가지 도형열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